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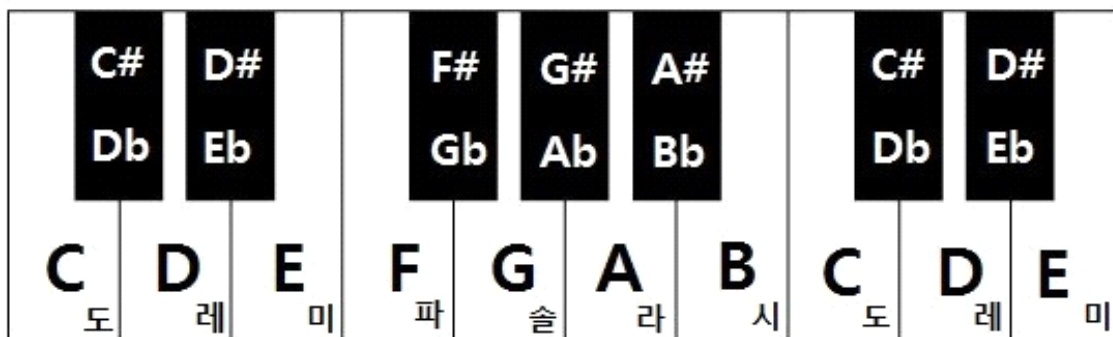
음악이론복습

- 음정 -

방진

1. 이 시간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의 음이름을 익힌다.
2. 두 음을 보고 음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1. 음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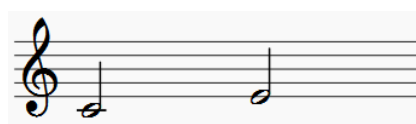


영어 음이름	C	D	E	F	G	A	B	C
한국 음이름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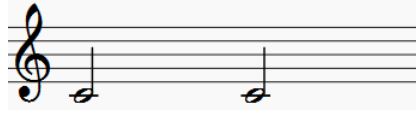
1. 칠판에 건반과 음을 그리고 학생을 지명하여 돌아가면서 읽히도록 한다.
2. 읽음 -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나온 음이름으로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쓰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하니 우리도 편의상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정

- 1)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아래 악보의 ‘도’와 ‘미’ 사이의 음정을 3도라 한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2) 아래처럼 음이 똑같은 음정은 1도라 한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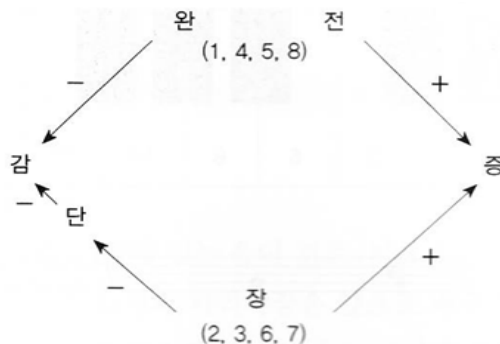
3) 음표에 임시표나 조표가 붙어도 음정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의 모든 음정은 3도이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2도나 6도 및 7도의 예도 그리며 설명한다.**



4) 음정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완전, 장, 단, 증, 감 등이 그것이다. 밑의 건반과 음정을 칠판에 일단 그려 놓는다. 밑의 음정표는 외우기 힘들니 아래처럼 건반을 생각하면 어떠한 음정에서 온음이 몇 개이고 반음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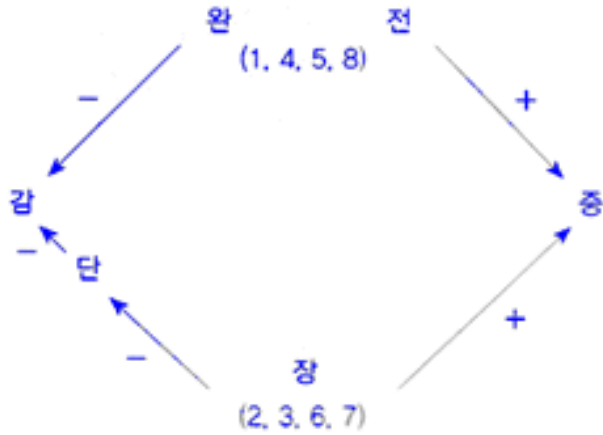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완전1도	0	0	완전5도	3	1
장2도	1	0	장6도	4	1
장3도	2	0	장7도	5	1
완전4도	2	1	완전8도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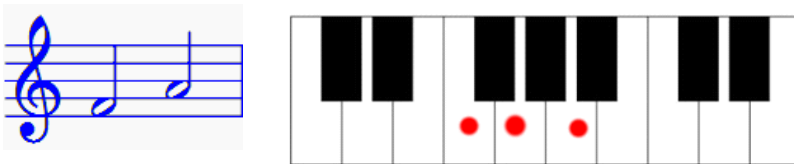
반음의 수가 올라갈수록 음정간격이 넓어지고, 반음의 수가 내려갈수록 음정간격이 좁아진다.

1. 일단 아래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2. 학생들의 핸드아웃 3페이지에 있는 오선지를 활용하여 교수가 칠판에 아래의 예제들을 그리고 문제를 풀게 함으로 음정을 이해하도록 시킨다. 미리 그려 놓은 **건반**에다 **빨간 색으로 음을 칠하며 문제를 푼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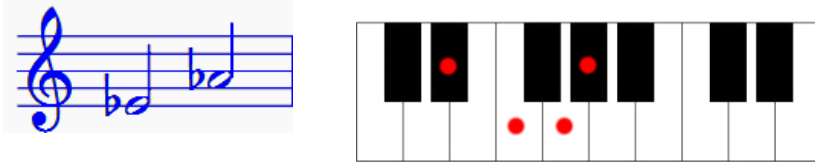
'파'와 '라'는 일단 3도이니 답에 '3도'라 쓰고 온음이 2개이므로 '장'을 붙여 '장 3도'라 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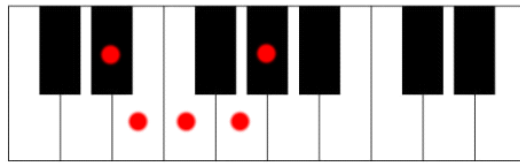
'라'와 '도'가 3도이니 답에 '3도'라 쓴다.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1개이니 온음이 2개인 장3도에서 하나 빠진 것이므로 답은 '단3도'이다. 사실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1개인 것은 장2도도 마찬가지이나 일단 보이는 음정이 3도이니 2도를 신경쓰지는 않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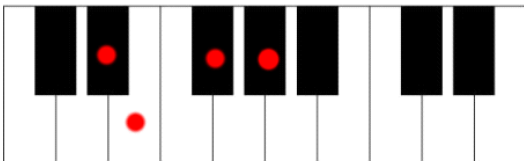


보이는 음정이 4도이니 답에 '4도'라 쓴다. 4도이니 건반에 4개의 점을 찍는다. 온음이 2개이고 반음이 1개이니 답은 완전4도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5개의 점을 찍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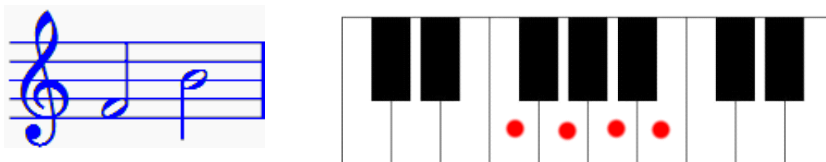
5도일 때 5개의 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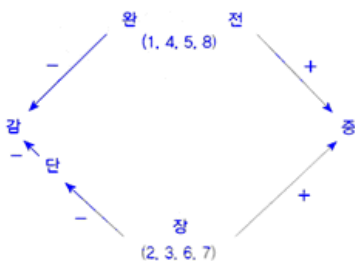
아래처럼 4개의 점을 찍어도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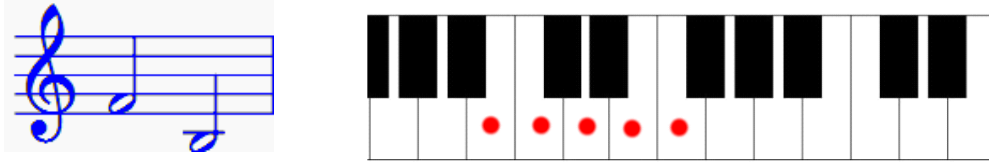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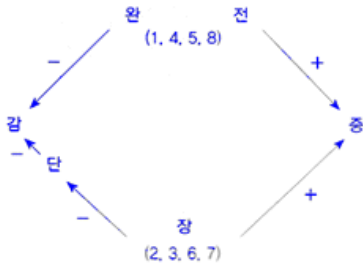
일단 4도이므로 답에 '4도'라 쓴다. 일견 완전4도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완전4도는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데 이것은 온음이 3개이기 때문이다. 완전4도에서 반음이 하나 올라가면 '증'을 붙여 '증4도'로 답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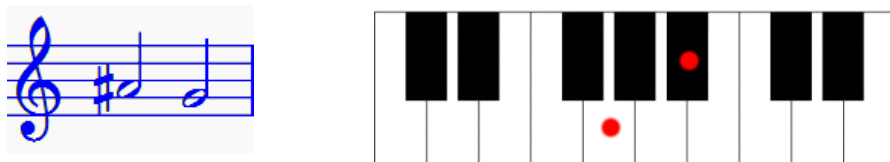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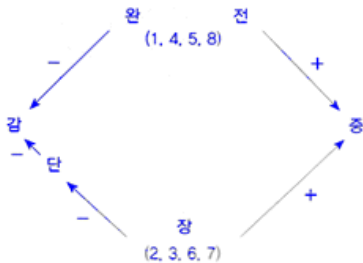
일단 5도이므로 답에 '5도'라 쓴다. 일견 완전5도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완전5도는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데 이것은 온음이 2개, 반음이 2개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5도보다 반음 1개가 적다. 완전5도에서 반음이 하나 내려가면 '감'을 붙여 '감5도'로 답을 써야 한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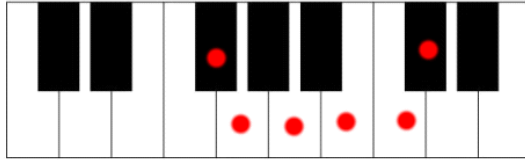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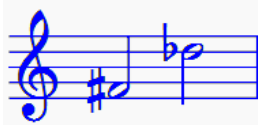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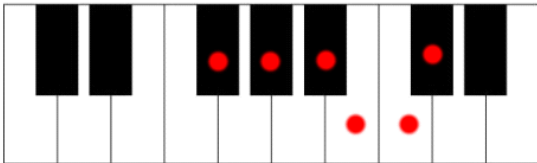
2도이니 답에 '2도'라 적는다. 2도이니 점을 2개를 찍어야 하는데 '라#'과 솔' 말고 또 찍을 수 없다. 장2도가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0개인데 악보에는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1개이니 장2도보다 하나 올라간 것이 답이다. 장2도에서 하나 올라가면 '증'을 붙여야 하므로 답은 '증2도'이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것.



7)



6도이니 답에 '6도'라 적는다. 장6도는 온음이 4개이고 반음이 1개인데, 악보에는 온음이 2개, 반음이 3개이다. 곧,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 것과 같다. 이는 장6도보다 반음이 2개 내려간 것이다. 장6도보다 1개 빠지면 단6도, 하나 더 빠지면 감6도가 되므로 답은 '김6도'이다. 악보를 아래와 같이 점을 찍어도 상관없다. 6개만 찍으면 된다.



8) 남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5분간 풀게 하고 한 사람씩 나와 문제를 풀도록 한다. 모르는 학생을 세워두고 알 때까지 다시 설명한다.